

중동지역연구회 96년 상반기 연구자료

# 유대인 방랑 歷史에 관한 考察

1996. 6. 19

작성자 : 강 영 수 / KOTRA 지역조사처

**kotra** 본 자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장 자료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중동지역연구회 96년 상반기 연구자료

# 유대인 방랑 歷史에 관한 考察

1996. 6. 19



작성자 : 강 영 수/지역조사처

# 목 차

I. 서 언 .....	3
II. 유대민족의 기원 .....	3
1. 민족의 발원 .....	3
2. 민족의 형성 .....	4
가. 유대민족에 대한 개념 .....	4
나. 민족 태동 .....	5
III. 통일 왕국 .....	6
1. 이스라엘 왕국 수립 .....	6
2. 왕국의 패망과 강제 이주 .....	7
IV. 디아스포라 .....	7
1. 정 의 .....	7
2. 초기 디아스포라 .....	8
3. 차별의 실태 .....	9
가. 기독교 세력권 .....	9
나. 이슬람 세력권 .....	11
다. 동부 유럽 .....	11
4. 유대인의 신분해방 .....	12
V. 민족의 대이동 .....	13
1. 이동의 배경 .....	13
2. 미국 유대인 사회의 형성과정 .....	13
3. 2차대전 이후 유대인들의 미국 집중 .....	15
VI. 해외 유대인과 이스라엘 관계 .....	17
1. 유대인의 세계 분포 실태 .....	17
2. 이스라엘에 대한 해외 유대인들의 인식 .....	19
3. 미국 유대인들의 조직 현황 .....	20
4. 미국 유대인들의 친이스라엘 로비 실적 .....	23
VII. 맺 음 말 .....	26



# I. 서 언

지난 5월 29일 이스라엘의 총선을 놓고 국내언론은 특과원을 현지에 파견하기까지 하면서 서로 앞다투어 연일 대서특필했다. 지중해 연안의 조그만 나라에서 총리를 선출하는데 왜들 과민반응을 일으키는가 싶어 4대 일간지의 국제부에 전화를 해보았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총리 선거가 중동평화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세계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결국은 우리나라에까지 파급되는 뉴스감이기 때문”이라는 식이었다. 우리나라의 원유 소비량 75%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불똥이 우리에게도 튄다는 것이다. 어떤 기자는 선거 결과가 발표됐으니까 향후 이스라엘과 아랍측간의 특별한 분쟁이 없는 한, 별다른 보도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의 방랑 생활 중 갖은 억압과 민족 말살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과 같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세계무대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류학과 같은 학문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에 적지않게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때문이다. 그리고 당장 국제비즈니스맨은 유대인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으면, 그들과의 상담을 훨씬 부드럽고 친숙하게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본고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초기부터 현대까지 다루면서 방랑 생활 속의 핍박 실태와 민족의 이동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VI항의 해외유대인과 이스라엘 관계는 방랑생활 청산과 함께 세계 유대인의 조직적 단결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 유대인 사회의 친 이스라엘 로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내용에 있어서 史的인 것과 미국 유대인의 로비에 관한 내용은 문헌에 의존했고, 문화에 관한 사항 중 일부는 이스라엘에서 6개월간 각국의 유대인들과 함께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틈틈이 수집한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헌확인고 전문가의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 II. 유대민족의 기원

### 1. 민족의 발원

유대민족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이스라엘 역사의 시발점이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Ur)에서 출발하여 하란(Haran)을 거쳐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으로 이주해 들어갔다. 그 시기는 BC2000년에서부터 BC1500년 사이로 학자에 따라 주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BC1750년 무렵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같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는 정치적 측면에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분리되고, 종교적 측면에서는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였다.

가나안은 당시의 양대 문명권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근의 바빌로니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탐욕 대상이었다. 이들 강대국 중에서도 이집트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다. 이집트의 파라오 전성기에 가나안은 이집트의 국경 교역 중심지로 부상하고, 이집트가 파견한 총독이 통치하며 요새마다 군이 주둔함으로써 이집트의 영토화되어갔다. 그리고 이집트는 곡창지대로서 가나안이 기근을 당했을 때 피신처 역할을 했다. 즉, 아브라함과 야곱 시절에 히브리족속들은 가나안으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이주해 들어갔다.

그런데 BC1730년경 이집트는 동방의 아시아민족인 힉소스의 침공을 받아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힉소스왕가는 전통과 관행에 있어서 자신들과 유사성이 많은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유입을 환영했다. 요셉과 그의 무리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王都에서 멀지 않고 이집트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나일강 델타에 정착하게 한 조치에서 잘 나타난다. 이집트의 옥토에 자리잡은 히브리족속은 번성기를 맞이하여 종족이 늘어나 소집단이 아닌 한 민족 단위로 성장할 수 있었다.

## 2. 민족의 형성

### 가. 유대민족에 대한 개념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호칭이 옛날에는 없었다. 초기에는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백성이라는 명칭이 있었을 뿐이다.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선조 중의 한 명인「에베르(Ever)」아니면 유프라테스강 저편에서 건너왔다는 의미에서 저편이라는 뜻의 「에베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을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되어 그 후손들이 스스로를 이스라엘인 또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불렀다.

유대인의 어원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으로부터 분리된 유다왕국의 백성에 대한 호칭에서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왕국과 유다왕국이 주변 강대국들에게 차례대로 패망한 이후 과거 통일 이스라엘왕국 백성의 후손들을 통칭하여 유대인으로 불렀다. 이들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 명칭이 유대민족이다.

이같이 유대인의 자격 요건이 혈통에 근거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종교공동체로 변해갔다. 유대율법인 미쉬나와 탈무드는 유대인의 자격에 있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하고, 만약 어머니가 비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추후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유대인으로 인정 받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유대인 백과사전인 JUDAICA에도「부모가 유대인인 아이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자가 유대인으로 인정되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신성함과 율법을 준수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다. 결국 유대인의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혈연주의가 아닌 종교문화적 동질성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 나. 민족 태동

히브리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태동하게 된 궁극적인 계기는 이집트 파라오의 탄압으로 볼 수 있다. BC1550년경 이민족 히소스왕가를 축출한 이집트 토착민들은 신왕국을 수립하고, 히소스인들의 통치기간에 특혜를 받아 크게 번성한 히브리인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시작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을 점진적으로 노예화시켜 피라미트 건축, 성곽 공사 또는 여타의 토목공사에 동원하고 그들의 회합을 금지시켜 결속을 사전에 차단해 나갔다. 당시 이집트 거주 히브리인들의 약 80%가 노예신분으로 전락하고 그러한 핍박은 2~4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노예생활은 미국 남부 농장에서 일하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처참한 삶과 비유되기도 한다.

이같은 착취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이방인들의 출산을 제한하기 위해 파라오는 마침내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한 性을 구분하여 여자 아이이면 살려두고 남자 아이이면 즉시 죽이는 男兒학살 조치를 취하여 모세의 출현을 초래했다. 파라오의 반헤브라이즘은 20세기의 제 2차 대전시 히틀러에 의해 잔행된 유대인 대학살과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의 차별과 억압은 오히려 흩어진 히브리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유발시켜 하나의 민족으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히브리인들은 고유전통과 구전으로 전해내려 오는 전설에 근거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자연히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의 족장시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유대교 근본 개념을 정립했다. 신앙에 대한 개념 정립은 신학, 도덕, 정치, 사상 및 유대인의 종말론에 대한 골격을 형성하게 된다. 그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사상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약이다. 아브라함 이후 그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약은 야곱의 후손을 번성케 한다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 가나안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히브리인들은 종교적 전통, 강한 가족, 종족 결속 및 히브리어를 간직하며 노예해방과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기다린다. 모세가 나타나서 이집트의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시기가 바로 이때다.

성경에는 430여년간의 노예생활 이후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그 수가 장정만해도 60만명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장정들이 부양하는 식구들과 다수의 다른 노예들을 합치면 그 수가 200만명이 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셉 시절에 야곱의 일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간 인원이 7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인원이다.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모세의 당면 과제였다. 하지만 다양한 계층의 하류민들을 한데 묶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모세는「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한 공통의 경험」과 「야훼와의 계약」을 토대로 히브리인과 잡다한 이민족들의 혼합체를 하나로 만들었다. 훗날 유대민족으로 이어지는 이 공동체는 성격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출발에서 유일신 사상과 선민사상을 근거한 종교문화적으로 변형되었다. 즉,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었고, 율법과 언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태동한 것이다.

### III. 통일 왕국

#### 1. 이스라엘 왕국 수립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광야로부터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사망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간 것으로 성경에 나타난다. 하지만 그같은 진입이 모든 무리가 함께 이동했는지 아니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12지파별로 따로 조금씩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의 가나안 진입과 관련하여 정복설, 평화이주설 그리고 혁명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초기 200여년 동안은 중앙정부나 단일 국가체제가 없었다. 지파별로 생활하면서 적의 출현시 지파동맹을 통하여 싸웠고, 중앙성소에서 다같이 제의식을 치루며 연대의식을 지속시켰다.

그러한 가운데 베냐민지파의 농부의 아들인 사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군림하게 된다. 그 시기가 BC1012년부터 그가 사망한 BC1007년까지이다. 그의 사후 유다지파 출신인 다윗이 왕위를 승계하여 BC1003년에 예루살렘을 왕도로 정하고 최초의 통일 이스라엘왕국을 수립했다. 그는 세력을 주변으로 뻗쳐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그리고 행정, 군사, 조세 및 종교체제가 확립됨으로써 그렇지못했던 사울 통치 기간과의 차이를 나타내 주었다. 따라서 다윗이 최초의 이스라엘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윗의 계승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와 지혜 그리고 명예의 상징인 솔로몬이다. 그가 왕좌에 오른 시기는 BC965년이었다. 솔로몬은 인근국들과의 대상무역(隊商貿易)과 무기 판매, 통행세 부과, 광업 등으로 국고를 늘리고, 곳곳에 군사적 요새를 건설하고, 대규모 전차 부대를 됴으로써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예루살렘의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세우는데에 백성들을 강제동원함으로써 원성을 사게 되었다. 솔로몬의 실정은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과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였고, 그가 사망한 BC926년에 통일 이스라엘왕국은 북부의 이스라엘왕국과 남부의 유다왕국으로 나뉘어졌다. 솔로몬의 사후 그의 아들이 왕위 계승하는 것을 남부의 유다지파는 승인했으나, 북부의 지파들은 이를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왕국은 유다와 시므온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의 사마리아를 수도로 이스라엘왕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 2. 왕국의 패망과 강제 이주

이스라엘왕국이 남과 북으로 양분된지 200여년만에 북의 이스라엘왕국은 앗시리아, 남의 유다왕국은 다시 그후 150여년만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했다. 그러니까 BC1003년에 다윗이 세운 통일왕국은 BC926년에 양분되어 BC722년에 이스라엘왕국이 앗시리아, BC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패망한 셈이다.

당시 전쟁에서 한 국가가 상대 국가를 이기면 그 나라의 백성을 강제이주시켜 봉기의 위협을 방지하는 관행이 있었다. 앗시리아가 이스라엘왕국을 점령했을 때나 바빌로니아가 유다왕국을 점령했을 때 모두 그러했다. 점령지의 상류층 상당수를 자국으로 끌고 갔다. 유대 역사에 최초의 방랑생활이 등장하게 된다.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침입은 유대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전자의 경우 이스라엘왕국의 백성들을 자국의 변방으로 강제이주시키고 자국민을 점령지에 옮겨 살게 하는 통합을 추진했다. 이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종적이 끊긴 계기였다. 후자의 경우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해버림으로써 유대인들의 신앙 중심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전이 무너진 이후 유대인들은 시나고그를 만들어 예배와 모임의 장소로 사용했다. 신전과 시나고그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제사를 지냈지만, 후자의 경우 예배나 모임의 장소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한편, BC539년에 신흥 페르시아가 세력을 뻗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게 되었다. 정복자 고레스왕은 이듬해 신년 축하식에서 칙령을 발표하여 바빌로니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허물어진 신전을 재건하도록 했다. 1차로 4만여명이 귀환하여 두번째 신전 건축 공사에 착수했다. 유대인들은 이같은 고레스왕의 후의에 대해 페르시아가 당시 팔레스타인 남쪽의 강대국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 유대인을 재정착시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IV. 디아스포라

### 1. 정 의

디아스포라는 「離散」을 나타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스라엘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총칭하는 뜻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를 단순히「민족의 흩어짐」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민족에 의해 국외로 추방된 유대인 집단이라는 감상적인 인식이 서려 있다. 그래서「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했고 조상들이 살던 이스라엘을 한번쯤 생각해 하는 표현이다.

## 2. 초기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유다왕국이 바빌로니아에게 패망하고 예루살렘의 신전이 파괴된 기원전 586년부터 시작된다. 세계사에 알려진 바빌로니아의 유수와 함께 디아스포라가 생긴 셈이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점령하여 이듬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신전을 세우라고 했지만, 모두가 귀환하지는 않았다. 현지 잔류 유대인들은 돈을 거두어 귀환 유대인들을 지원했다. 그리고는 바빌로니아에서 뿌리를 내려 디아스포라의 본부로서 유다이즘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한편, 지중해 연안은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갔다. 알렉산더 대왕이 터키, 지중해 동부 그리고 이집트까지 영토를 확장해나갔다.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포로 또는 자발적인 이주로 흩어졌다. 그러한 흩어짐은 그리스 다음의 팔레스타인 지배국으로 나타난 로마시대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는 예루살렘의 두번째 신전이 로마군에게 산산조각이 난 서기 70년 무렵의 유대인 분포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유대인의 인구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7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로마제국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700만명의 유대인 중 250만명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했고, 나머지 450만명은 팔레스타인 밖에 살았다. 즉, 디아스포라의 인구가 팔레스타인 내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다.

디아스포라는 동부의 바빌로니아, 서부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북부의 앗시리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빌로니아 커뮤니티는 유다이즘 전통고수와 아람어를 사용했고, 알렉산드리아 커뮤니티는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을 혼용하면서 희랍어를 사용했으며, 북부의 앗시리아 커뮤니티는 독특한 고유전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에는 각각 백만명 이상의 유대인이 거주했다.

이 이외에도 지중해 주변으로 남부유럽,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 유대인들이 산재해 있었다.

국별 유대인 거주지를 보면, 이태리 43, 스페인 18, 프랑스 19, 독일 4, 메소포타미아 9, 바빌로니아 14, 이집트 42개의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리스와 터키, 이디오피아,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에도 유대인이 살았다.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살든 제각기 조상의 땅과 어떤 형태로의 관계를 유지했다. 비록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종교적 중심이었다. 그들은 서기 70년이 되기까지 매년 예루살렘의 신전 관리를 위한 세금을 각출하여 보냈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는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집트를 통치한 로마당국은 유대인들의 종교생활과 커뮤니티 내부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하면서도 시민권에 대해서는 차별을 가했다. 즉,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들에게는 감세를 해주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 현지 유대인 커뮤니티와 그리스인 커뮤니티간의 경쟁은 민족적 반세미티즘을 불러 일으키

게 되었다.

로마제국의 차별에 대해 분노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함께 봉기했다. 그러나 로마제국내의 전 디아스포라로 확산된 유대인들의 대봉기는 실패하고,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 신전 붕괴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축출 결과만 남았다.

지중해 연안에서 로마군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잔인하게 진압했지만, 바빌로니아의 유대 커뮤니티는 안전했다. 그들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이용한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농촌과 도시에서 생활 기반을 닦아갔다. 섬유, 가내수공업 등에도 활발하게 진출했다.

바빌로니아 커뮤니티의 경제적 기반은 광범했다. 직업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인과 부동산업자와 같은 부유층, 수공업 분야의 중간계층 그리고 소작농과 같은 저소득층에 유대인들은 골고루 종사했다. 하지만 후에 이러한 계층간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크게 벌어지면서 커뮤니티 내부의 결속이 와해되고 갈등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탈무드를 편집하고 랍비 유다이즘을 발전시켜 사방의 유대 커뮤니티로 보급하는 디아스라의 중심역할을 해나갔다.

### 3. 차별의 실태

#### 가. 기독교 세력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게 된 것은 비잔틴제국의 콘스탄티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24년 이후부터이다. 로마제국의 국교로 채택된 기독교가 날로 세력을 확장해가는 대신 유대교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선민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며 핍박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 기독교인은 유대인과의 혼인을 금한다.
- 2) 기독교인은 유대인 옆에 앉아서는 안된다.
- 3) 유대교로 개종하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의 기독교 개종을 방해하는 다른 유대인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 4) 유대인은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 5) 유대인은 기독교인 노예를 거느릴 수 없다(후에는 이교도 노예까지도 소유가 금지됨).

6세기 중반에는 더욱 가혹한 법규가 제정되었다. 유대인들은 시나고그에서 히브리어로만 기록된 성경 읽기가 금지되고 그리스어나 라틴어로의 번역본을 함께 사용해야만 했다. 또 구약성경을 해설한 미쉬나나 랍비들의 주해가 금지되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신성한 권한도 가지지않고 있으면서 인간적인 오류를 유포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13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탈무드를 불태우는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7세기 말에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공동 목욕 금지와 기독교인의 유대인 의사 고용이 금지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같은 반유대 법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 세력권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업, 수공업 및 대금업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것마저도 기독교인들이 상업과 수공업을 장악하기 위해 길드를 조직함에 따라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금지된 대금업을 생계수단으로 삼았다. 그런데 유럽의 국왕들이나 봉건영주들이 필요한 자금을 이 유대인 대금업자들에게 의존했다. 그들은 유대인의 집단촌을 직할통치권에 두고 대금업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한 이익을 챙겼다. 유대인들은 대금업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통치권자가 그들을 추방하면서 재산을 탈취하는가 하면, 반유대를 외치는 기독교인들의 폭동 과정에서 고리대금업자가 사망하면 부채가 청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12세기 말 영국에서 발생하여 유럽으로 퍼졌다.

유대인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11세기말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에서 그 잔인성이 여실히 나타났다. 무슬림 통치권에 있던 팔레스타인을 되찾기 위해 동원된 십자군이 지나간 지역의 유대인 집단 촌락은 살상과 약탈로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중세의 반유대주의는 각종 중상모략을 낳았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중상으로「기독교 아이를 죽여 성찬에 사용한다」와「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기 때문에 흑사병이 생겼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중상은 유럽대륙의 도처에서 살상과 테러를 불러일으켰다.

외관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은 표시나게 해야만 했다. 그 표시 방법은 국별로 조금씩 달랐다. 독일에서는 13세기와 14세기에 노란색의 원추형 모자를 착용했고, 15세기에는 바깥 옷에 노란 형질을 바늘로 꿰매어 다녔다. 영국에서는 왼쪽 가슴에 노란 형질조각을 부착했다. 프랑스에서는 앞가슴 또는 등뒤에 둥근 원형 천 조각을 붙였는데, 그 색깔은 지방에 따라 노란색, 붉은색 그리고 하얀색이 있었다. 스페인에서는 붉은 원형 형질조각, 이태리에서는 노란색, 베니스공국은 붉은색이었다. 이「수치의 뱃지」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야 없어졌다.

유대인들은 12세기와 15세기 사이에 종교적, 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아 유럽 대륙의 곳곳에서 추방당했다. 프랑스가 최초로 국가 차원의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고, 1290년에 영국은 자국내 유대인을 모조리 국외로 내쫓았다. 14세기 중에도 프랑스에서 수차례 추방이 있었다. 1391년에 스페인은 기독교로의 개종을 거부한 5만여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1492년에는 5만명이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15만명의 유대인은 스페인으로부터 추방되어 인근의 지중해 연안과 중남미로 흩어졌다. 그들 중 일부는 인근의 포르투갈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1497년에 추방령이 내려졌다.

한편, 방랑생활의 유대인들은 「국가 속의 국가」를 이루어 종교와 고유전통을 유지하면서 자치생활을 영위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를 게토라고 불렀다. 1509년 베니스공국에서 최초로 생겨난 게토는 유대인들의 거주를 제한하는 강제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게토는 야간에 기독교인들에 의해 출입구가 봉쇄되고 내부는 인구 과다로 인하여 비위생적이었다. 게토가 사라지게 된 계기는 「자유·평등·박애」를 부르짖은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 나. 이슬람 세력권

7세기 초 아라비아반도에서 발흥한 이슬람세력은 비교적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치에서 알 수 있다.

— 로마시대에 내려진 유대인의 예루살렘 정착 금지조치를 철회했다.

—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종교자유, 커뮤니티 자치권,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군복무 면제 그리고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민사 및 가족분쟁 조정권을 확보했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었다.

- 1) 특별 인두세 부과
- 2) 새로운 시나고그 건설 불허
- 3) 무슬림 근로자 또는 노예 확보 불허
- 4) 공직 진출 불가능
- 5) 말이나 나귀를 타고 다닐 수 없었을뿐만 아니라 무기류 휴대 금지
- 6) 무슬림 이웃보다 높은 집을 건축할 수 없음.
- 7) 무슬림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받아 들여서는 안되고, 유대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
- 8) 유대인의 복장 구분(예 : 특별한 모자, 망토, 허리띠 또는 뱃지 부착)

이외에도 경제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농노 이용을 금지시키면서 농업에서 축출시켰다. 그들은 도시로 이동하여 상업과 수공업으로 생계를 지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독교권과 마찬가지로 이슬람권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각국에 산재한 유대인 커뮤니티와의 접촉을 통한 국제무역에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우호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슬람세력권의 바그다드와 남부 스페인에서 번성한 유대인 커뮤니티와 문화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아랍인 생활방식에 꾸준히 적응해 나갔다. 문학, 철학 그리고 의학과 같은 분야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의 지적 협력은 무어인들이 지배하던 남부 스페인에서 크게 꽃을 피웠다. 그리고 15세기말 스페인의 기독교 세력으로부터 추방당했을 때 유대인들은 대거 북아프리카와 오토만터키와 같은 이슬람국가로 이주해갔다.

## 다. 동부 유럽

일반적으로 동구의 유대인이라고 하면 중세 독일과 발칸반도 커뮤니티들의 출신으로부터 시작된다. 13세기 초 폴란드는 몽고족과 타타르인들의 침략으로 마을들이 온통 황폐해졌다. 그래서 폴란드의 왕자들은 무역과 수공업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독일인들이 자국 영내로 이주토록 각종 혜택을 주었다. 이들 이주 독일인들 중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14세기에는 폴란드를 통일시킨 캐시미르대제가 유대인들을 황제의 직접적인 보호하에 두고, 그들의 생활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해주었다. 이같은 조치는 이웃의 리투아니아에서도 취해졌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토착 기독교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기독교 성직자들이나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중세 서구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살기가 좋은 나라였다. 15세기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60여개의 유대인 커뮤니티가 생겼고 유대인의 수는 3만명에 달했다. 이는 17세기 중반에 50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1648년 코사크인들의 반란으로 폴란드 유대인 사회의 성장세가 끝났다. 코사크인들은 수백개의 유대인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수만명을 학살했다. 그 이유는 15세기와 16세기에 유대인들이 황제나 귀족들을 위한 징세인 역할을 맡으면서 토착민들의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18세기말 러시아가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1백만여명의 현지 거주 유대인을 흡수했다. 짜르왕정은 유대인들이 프랑스의 혁명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1795년에 발트해에서 흑해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정착지 구역을 설정했다. 1897년의 러시아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 지역내 거주 유대인 수가 5백여만명으로 구역내 총거주인의 11%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했기 때문에 구역내 도시 인구의 1/3이 유대인일 정도였다. 이 유대인 구역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 때에야 없어졌다.

#### 4. 유대인의 신분해방

유대인들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여 중세의 신분 차별대우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평등.박애」를 부르짖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고, 1791년에 유대인들의 신분이 해방되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혁명군이 진입하는 나라마다 유대인들이 간헐 살던 케토의 문이 부서졌다. 1848년에 프러시아, 1851년에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태리, 독일로 해방의 물결이 계속 확산되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민권을 부여받고, 그들과 이웃하여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불가능했던 공직과 교직에 자유로이 진출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수천명의 유대인이 군에도 지원했다. 프랑스 유대인들은 국가에 충성을 다짐하고 자신들을 순수한 종교적 그룹으로만 간주하는 데에 동의했다. 즉, 그들은 나폴레옹의 의도에 따라 프랑스 국민으로의 흡수.동화되기 위해 유대민족 또는 유대백성이라는 개념을 포기한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는 시민이 되었다. 유대인 중에서 총리도 나오고 장관이 배출되었다. 1870년에는 유대인 법무장관의 오랜 노력으로 식민지 알제리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까지 프랑스 시민권이 부여되기도 했다. 프랑스는 유대인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현지 동화가 이루어진 나라였고, 그들의 애국심 또한 무척 강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프랑스 정계, 재계 그리고 학계로의 진출이 활발해지자 현지인들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켜 결국은 반세미티즘을 낳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혁명 이후 프랑스 정권을 장악하고, 프랑스의 전통과 문화를 성공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금융체제를 통제하여 노동자 대중을 착취하고 있다」는 식의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침입자, 국제 금융인, 탐욕스런 기생충, 쌍눈, 배신자, 부도덕하고 비겁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 등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을 지식층과 작가들이 책이나 신문을 통하여 주도했다. 급기야는 반세미티즘이 프랑스 사회의 캠페인으로 발전해 나갔다. 반세미티즘을 내세우는 정치인은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고, 반세미티즘적인 신문이 잘 팔리고, 유대인 가게들에 대한 불매운동, 심지어는 반세미티즘 연맹까지 생겼다.

반세미티즘은 종교적인 배경보다는 사회, 정치, 경제, 종족적인 동기가 더 강했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종교적 적대감은 중세적 사고방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 사이에는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평등권을 무효화시키고 신분해방 이전의 속박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 갔다. 그러한 분위기는 드레퓌스라는 유대인 장교의 간첩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화되어 갔다. 드레퓌스의 누명을 벗기는 과정에서 나타난 프랑스인들의 뿌리깊은 반세미티즘을 발견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 V. 민족의 대이동

### 1. 이동의 배경

유대인의 이주 원인은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동기로 구분되어지는데 제각기 시대적,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첫째, 중세 유럽의 기독교권에서는 종교탄압 조치였던 추방령이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이동 원인이었다. 특히 1492년의 스페인 유대인 축출과 뒤이은 종교 재판으로 인하여 신대륙으로 유대인들이 진출하게 되었다. 둘째, 근세로 접어들어서는 동구의 유대인들이 절대빈곤과 반세미티즘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대거 이동했다. 셋째,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 힘입어 동구의 시오니스트들과 아랍국가의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으로 귀환했다. 본장에서는 유럽 대륙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는 과정과 미국 유대인 사회의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 2. 미국 유대인 사회의 형성과정

미국에 유대인들이 첫발을 디딘 시기는 1654년 9월이었다. 23명의 유대인들이 포르투갈

식민지 브라질로부터 탈출했던 것이다. 그들은 오늘의 뉴욕인 뉴암스테르담에 도착하여 현지 정착했다. 그후 동부연안의 몇몇 지역에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만들어 인디언들과의 교역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1776년 미국이 독립국으로 선언할 때 13개주 총인구 약 250만명 중 유대인은 고작 2500명에 불과했다. 미국에 유대인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은 19세기 후반이었다. 유럽의 유대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이다.

이들 유대인의 미국 이민은 그 시기와 출신지역에 따라 다음같이 구분된다.

첫째, 1840년부터 1870년까지 약 5만명의 독일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보붓상으로 시작하여 무역과 장사를 하면서 얼마후 금융업과 백화점업으로 진출했다.

둘째, 1870년부터 1914년까지 러시아제국(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함), 루마니아 그리고 헝가리로부터 계속되는 포그롬(대량학살)과 빈곤을 못견뎌 2백만명 이상이 미국으로 떠났다. 그들은 수공업자, 숙련공, 소상공인 그리고 가게 점원들로서 오늘 미국 유대인의 본류이다.

셋째, 1925년부터 1943년까지 중구로부터 25만여명이 이주했다.

이를 연대별로 다시 정리해보면, 1870년대 4만명, 1880년대 20만명, 1890년대 30만명, 1900년부터 1914년까지 150만명의 유대인이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대부분이 뉴욕에 상륙하여 그곳에 주저앉았다. 1870년 뉴욕의 유대인 인구가 8만명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1915년에 140만명으로 늘어났다. 뒤늦게 이주한 사람들은 뉴욕에서 친척, 친구, 직업 그리고 교육 기회를 찾았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뉴욕의 어디에서 유대 식품을 구할 수 있는지 또 어디를 가야 샅밭날에 일하지 않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민 유대인들은 뉴욕에서도 맨해튼섬의 몇몇 지역에 밀집했다. 그러다보니 주거 환경이 엉망이었다. 20세기 초 유대인 지구의 인구밀도는 대략 천평의 면적에 5백명이 사는 꼴이었다. 임대한 집의 각층에는 두 가족이 뽀뽀하게 살면서 화장실 한개를 함께 사용해야 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열기와 악취로 숨 쉬기조차 어려운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힘든 노동으로 정착기의 고통을 극복하고 몇년 뒤에는 하나둘씩 슬럼가를 빠져 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비단 뉴욕만의 일이 아니고 보스턴, 시카고 그리고 여타 대도시에서도 비슷했다.

직업에 있어서 동구 출신의 유대인들은 정착 초기에 정육점, 채소상, 신문배달 또는 캔디 가게 점원으로 시작하여 후에는 酒造, 인쇄, 담배 및 부동산 거래 부문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19세기말에 의류산업이 경제구조를 바꾸어 가고 있을 정도로 성행하고 있어 유대인들은 봉제부문에 엄청난 사람이 고용되었다. 1890년에 유대인 노동자의 절반이상 그리고 유대인 봉급생활자 2/3가 봉제업에 종사할 정도였다. 직공으로 출발한 유대 노동자들은 얼

마 지나지 않아 관리자가 되고 또 사장이 되어 미국의 봉제업을 주도했다. 2차대전 전 여성 의류제조 95%, 남성의류제조 85% 그리고 모피산업의 75%를 유대인들이 장악했다.

그런데 당시 봉제공장의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했다. 우선 공장이라야 다락방이나 임차 주택 아니면 아파트였다. 작업시간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가 예사였다. 사람들의 땀을 쥐어짜는 노동의 댓가는 고작 일주일에 남자 6내지 10불이고 여자 3내지 5불이었다. 이러한 여건은 유대인들에게 노동조합을 생각해 했다. 특히 러시아출신 중에는 유럽에서 사회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미국 봉제노동조합 결성의 틀을 만들어 주었다. 1900년 국제여성봉제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을 필두로 다른 부문에서도 노조가 결성되면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일어났다. 노조는 단순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만 국한하지않고 주택건설, 교육계획, 건강진단 및 관리, 연금, 실업보험, 휴가, 리조트 개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유대인들의 노조운동 주도는 나중에 공산주의자로 몰려 곤혹을 치루기도 한다.

노동운동의 결과로 각종 혜택이 확보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노동자 계급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않았다. 그들은 자녀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들이 좀더 나은 직종에 종사하기를 원했다. 그 결과 1900년 초 미국태생 러시아계 유대인들 중 변호사와 회계사가 된 사람은 기성세대보다 6배와 7배가 각각 더 많았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들이 남의 밑에 고용되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치과의사와 같은 자유업 진출을 더 바랬다. 1940년대에 이미 뉴욕전체 의사, 법률가, 치과의사의 60% 이상을 유대인이 장악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의 직업관은 2차대전 이후 서서히 바뀌어 갔다. 즉,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식이었다. 이미 유대인 육체노동자는 사라졌다. 거의 대부분이 화이트 칼러로 변모했다. 이제는 경력과 보다 큰 자기 만족을 위해 기자, 작가, 과학자, 건축가, 엔지니어, 학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선호 직업인 의사와 법률가로 활기차게 진출해 나갔다.

### 3. 2차대전 이후 유대인들의 미국 집중

2차대전이 발발한 1939년에 전세계 유대인 인구는 총 1,615만 명이였다. 그 중 950여만 명이 유럽 대륙에 살고 있었다. 유럽 이외에는 북미 470만명, 남미 42만명, 북아프리카 52만명, 팔레스타인 42만명, 아시아 35만명, 구소련의 아시아권 22만명, 남아공 15만명, 호주 3.5만명의 분포도를 보였다. 당시 유럽 대륙에 약 60%의 유대인이 모여 살았다. 특히 폴란드와 구소련권에만 600만명 이상이 밀집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유럽의 유대인들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2차대전 중 나찌의 대학살로 인하여 600만명이나 희생당했다.

### 나찌의 600만 유대인 학살 내역

국가명	유대인 인구	희생자 수	국가명	유대인 인구	희생자 수
폴란드	3,250,000	3,000,000	벨기에	85,000	24,000
구소련	2,800,000	1,200,000	불가리아	60,000	11,000
루마니아	800,000	350,000	이태리	45,000	7,500
헝가리	400,000	300,000	노르웨이	2,000	800
체코슬로바키아	315,000	270,000	룩셈부르크	2,000	700
독일	230,000	180,000	영국	350,000	—
리투아니아	155,000	135,000	터키	50,000	—
화란	140,000	105,000	스위스	20,000	—
프랑스	320,000	90,000	스웨덴	8,000	—
레토니아	95,000	85,000	덴마크	7,000	—
그리스	75,000	65,000	아일랜드	4,000	—
오스트리아	80,000	65,000	스페인	4,000	—
유고슬라비아	75,000	60,000	포르투갈	3,000	—
유럽 거주 유대인 총인구		9,375,000	나찌학살의 희생자 합계		5,949,000

자료원 : Histoire Universelle Des Juifs

600만명의 유대인 희생은 근대 유대역사에 있어서 다음 두가지 측면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된 시온운동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않던 미국의 유대인들이 나찌의 유대인 학살을 보고 태도를 달리했다. 미국 사회의 각계에서 기반을 잡은 유대인들은 당시의 트루만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여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그리고 서방의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의 참혹한 학살에 동정을 표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거부하지 않았다.

둘째, 미국을 디아스포라의 중심국으로 만들었다. 전쟁 전에는 유럽이 유대인들의 중심 거주지역이었지만, 600만명의 대학살 이후에는 미국에 전세계 유대인의 약 절반이 모여 사는 결과를 낳았다. 이스라엘과 미국 유대인 사회는 상호 결속을 강화하면서 유대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 VI. 해외 유대인과 이스라엘 관계

### 1. 유대인의 세계 분포 실태

1995년 현재 세계 전체 유대인의 수는 약 1,4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외의 유대인들이 자신이 유대인임을 공개적으로 밝히지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통계는 없다. 본고에서는 세계 각국의 유대인 커뮤니티가 작성한 인구 통계 자료를 토대로 그들의 세계분포 실태를 살펴본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이스라엘 거주 유대인 460만명보다도 120만명이나 더 많다. 미국과 이스라엘에는 전세계 유대인의 75%가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미국과 이스라엘은 유대인 생활의 양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은 유대인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며 전통을 보존해나가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해외에서 이스라엘과 전세계 유대인을 지원하고 있다.

반세기 이전에 약 1,000만명이 살고 있던 구소련권과 유럽 대륙에는 전세계 유대인의 17%만이 거주할 뿐이다. 그나마 1980년대말부터 구소련권 유대인들이 계속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차대전 직전에 45만명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는 반세기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유대인들이 이교도와의 혼인과 독신주의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지않고 있지만, 해외유대인들의 지속적인 귀환에 크게 힘입어 이스라엘의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유대인 150명의 통계는 서울에 파견나온 이스라엘인들과 그가족 그리고 주한미군 소속의 유대인과 비이스라엘 국적의 유대인 체류자들이다.

국별 유대인 인구현황

국 명	유대인 인구	국 명	유대인 인구	국 명	유대인 인구
미 국	5,800,000	루마니아	14,000	투르크메니스탄	1,200
이스라엘	4,600,000	스페인	14,000	쿠 바	1,000
프랑스	600,000	오스트리아	10,000	에쿠아도르	1,000
러시아	550,000	덴마크	8,000	아일랜드	1,000
우크라이나	400,000	폴란드	8,000	모나코	1,000
캐나다	360,000	모로코	7,500	짐바브웨	925
영 국	300,000	하와이	7,000	포르투갈	900
아르헨티나	250,000	파나마	7,000	예 멘	800
브라질	130,000	체코공화국	6,000	보스니아	600

국 명	유대인 인구	국 명	유대인 인구	국 명	유대인 인구
남아공	106,000	인 도	6,000	지브롤타	600
호 주	100,000	리투아니아	6,000	룩셈부르크	600
헝가리	80,000	슬로바키아	6,000	에티오피아	500
백러시아	60,000	콜롬비아	5,650	케 나	400
독 일	60,000	그리스	5,000	화란 안티에	400
멕시코	40,700	뉴질랜드	5,000	버지니아군도	400
벨기에	40,000	키르기스탄	4,500	볼리비아	380
이태리	35,000	불가리아	3,000	자이르	320
우즈벡스탄	35,000	에스토니아	3,000	자마이카	300
베네주엘라	35,000	페 루	3,000	싱가폴	300
우루과이	32,500	푸에르토리코	3,000	도미니카공화국	250
아제르바이잔	30,000	코스타리카	2,500	필리핀	250
몰도바	30,000	홍 콩	2,500	시리아	250
화 란	30,000	유고슬라비아	2,500	태 국	250
이 란	25,000	크로아티아	2,000	아르메니아	200
터어키	25,000	일 본	2,000	바하마스	200
스웨덴	18,000	튀니지	2,000	수리남	200
스위스	18,000	타지스탄	1,800	한 국	150
그루지아	17,000	노르웨이	1,500	엘살바도르	120
칠 레	15,000	과테말라	1,200	이라크	120
카작스탄	15,000	핀란드	1,200	타이티	120
라트비아	15,000	파라과이	1,200		

자료원 : Jewish communities of the world/ 96.1

이들 유대인은 디아스포라의 중심인 미국과 조상의 땅인 이스라엘을 축으로 세계무대의 각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그들의 위력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국제무대의 정상에 오르려면 유대인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말까지 있다. 이는 그들이 국제금융, 언론, 정보, 정치, 학계, 부동산 등의 다방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유대인으로서 인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사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영향력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즉, 모세, 예수,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칼 막스, 성모 마리아, 철학자 스피노자, 유럽의 재벌 로스차일드, 미국의 재벌 록펠러, 트로츠키,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르도와 사무엘슨, 헨리 키신저, 영화감독 스피버그, 배우 엘리자베드 테일러, 코미디언 채플린 등이 바로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없었다면 기독교나 이슬람이 어떻게 존재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은 어떠했으며, 정신분석학이나 원자력 활용은 어떠했을까? 4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각지에서 인류문명에 기여한 그들의 공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2. 이스라엘에 대한 해외 유대인들의 인식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책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만방에 퍼뜨리고 다른 민족들의 모범이 되도록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 종말론에서 비롯된 말세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천년왕국을 세울 때 유대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과업이다. 바로 이러한 사상은 유대인들이 2500년 유랑기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유다이즘을 보존하게 해준 원천이었다.

하나님의 천년왕국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대민족의 생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이민족이나 이교도들로부터의 민족적 생존 확보책으로 조상의 땅에 이스라엘을 재건시켰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시오니스트와 비시오니스트간의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그룹은 모든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을 주장한다. 하지만 후자의 그룹은 그렇지 않다. 전세계의 유대인이 한데에 모여 살면, 그만큼 민족적인 생존의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조국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또 각 커뮤니티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는 베긴총리의 대아랍 강경노선으로 미국 정부의 대이스라엘 감정이 악화되었던 1983년 당시 미국 유대인단체(The American Jewish Committee)에서 실시한 다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

(단위 : %)

질문 내용	일반 대중	지도자층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은 나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78	90
만약 이스라엘이 패망한다면, 마치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개인적 고통과 같이 느낄 것이다.	77	83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		
- 매우 우호적이다.	43	63
- 우호적이다.	43	35
- 그저 그렇다.	6	0
- 반이스라엘적이다.	2	2
- 매우 반이스라엘적이다.	1	0
이스라엘에 관한 신문 및 잡지 기사에 특별 관심을 갖는다.	93	99
친구나 친척과 함께 종종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한다.	75	97
나 자신은 이스라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56	93
이스라엘 방문 횟수		
- 1회 이상	40	94
- 2회 이상	17	78

### 3. 미국 유대인들의 조직현황

미국은 세계 전유대인의 41%가 모여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중심 국가이다. 특히 뉴욕은 미국 유대인 커뮤니티의 중심지로서 각종 유대조직의 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서 뉴욕(New York)을 '쥬욕(Jew York)'이라고까지 부른다.

미국에는 총 200여개의 각종 유대인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크게 시오니스트 조직, 커뮤니티 조직, 모금조직 그리고 친이스라엘 정치조직의 산하단체로 운영된다. 이들 4개 조직의 설립취지와 운영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1) 시오니스트 조직 : 각종 시오니스트 조직에 등록된 미국 유대인들의 수는 약 백만명에 달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시오니스트로 생각하고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하나의 의무로 여긴다. 미국 시오니스트 조직들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 촉진, 히브리어 교육, 친이스라엘 활동들에 대한 정치·문화적 후원, 이스라엘 채권 판매지원, 유대인연합기금(UJA)의 모금 그리고 종종 이스라엘 내의 프로젝트 또는 특정 기부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이 그 임무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미국-이스라엘 공공사업위원회(AIPAC)의 후원 하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지원사업, 미국내 친이스라엘 로비 및 미국 유대인 주요 조직의 회장단 총회에도 참여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조직들이 주로 고등학생들로 결성된 청소년 조직을 부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커뮤니티 조직 : 커뮤니티 조직의 본래 설립취지는 반세미티즘에 기인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방어와 각 지역, 국가 및 국제사업에 있어서 그들의 커뮤니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단순한 커뮤니티 방어라는 범위를 탈피하여 조직의 관심사를 내부 집단간의 관계, 시민권, 종교의 자유, 정교의 분리, 국제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 및 이스라엘 지원사업으로 역할을 확대시켰다. 현재에는 이스라엘 지원사업이 최우선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커뮤니티 조직들은 처음부터 시오니즘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들의 관심사는 미국 사회내에서 이민 유대인들의 지위 개선이었기 때문이다.

3) 모금조직 : 모금 조직으로는 유대인연합기금 이외에 여러개의 단체가 있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커뮤니티 자체경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그리고 곤경에 처해 있는 여타국의 유대인 지원사업에 지출한다. 지난 1980년대의 이디오피아 유대인 구출작전이나 구소련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과 정착에 필요한 재정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각종 모금 조직들이다. 유대인 모금조직 중 대표적인 UJA는 모금액의 80%를 이스라엘로 보낸다. 대개 부유층 유대인들이 헌금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모금액의 약 50%가 개별 헌금액이 1만불에서 50만불 사이이고, 5백만불을 넘기는 헌금액도 나온다.

4) 친이스라엘 정치 조직 : 미국내 친이스라엘 정치 조직중 대표적인 단체는 미국-이스라엘 공공사업위원회(AIPAC)이다. 이는 미국 유대 커뮤니티를 대변하여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1959년에 발족된 조직이다. 이 조직은 투표와 선거 자금을 로비 활동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선거자금 50% 이상과 공화당에도 상당한 지원금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뉴욕 주변의 동부 지역에서 투표 참여율이 높은 유대인들 표가 많다는 것이 그들의 주요 무기이다. AIPAC 이외에 정치실천위원회들(PACs)도 있다. 이는 1970년대 미국에서 선거 후보자에게 개인이나 단체가 지원하는 선거자금을 규제하자 그에 대응하여 설립된 조직이다. AIPAC과는 별도의 조직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조직의 기능이나 운용면에 있어서 양조직의 관계는 협조적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유대인 조직 현황

조 직 구 분	주 요 단 체 내 역
시 온 조 직	<p>◀ 내역 : 약 1백만명 참여, 시온운동 지원목적, 전국적 세계적 조직결성(예 : World Zionist Organization)</p> <p>◀ 주요 단체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orld Zionist Organization &amp; the Jewish Agency</li> <li>- Jewish Agency for Israel</li> <li>- World Zionist Organization(American Section)</li> <li>- Zionist Organization of America</li> </ul>
커뮤니티조직	<p>◀ 내역 : 미국내 유대인 커뮤니티의 이권 옹호와 반유대운동에 대한 대응이 설립목적, 시오니즘과 이스라엘 지원엔 소극적이고 오히려 반시오니즘적 성격내포</p> <p>◀ 주요 단체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uncil of Jewish Federations</li> <li>- Jewish Community Relations Advisory Council</li> <li>- American Jewish Committee</li> <li>- American Jewish Congress</li> </ul>
모 금 조 직	<p>◀ 내역 : 이스라엘 및 해외유대인을 위한 재정 모금조직</p> <p>◀ 주요 단체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ited Jewish Appeal(대표적인 모금단체)</li> <li>- United Israel Appeal</li> <li>- Jewish National Fund</li> <li>- State of Israel Bonds Corp.</li> </ul>
친이스라엘 정치 조직	<p>◀ 내역 : 친이스라엘 정치문제 담당 로비단체</p> <p>◀ 주요 단체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AIPAC : 친이스라엘 공식 로비단체)</li> <li>- Political Action Committees(PACs)</li> <li>- National Political Action Committee</li> <li>- Conference of Presidents of Major American Jewish Organizations)</li> </ul>

#### 4. 미국 유대인들의 친이스라엘 로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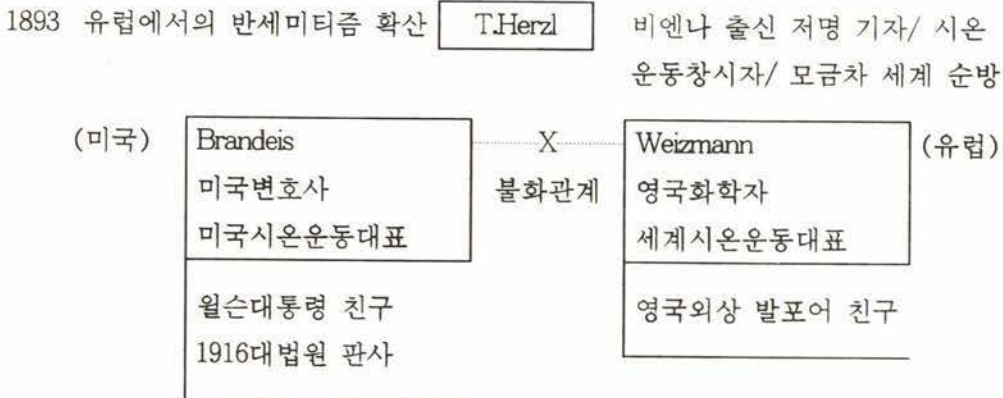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탄생한 1948년 이후부터 94년말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군사 원조자금은 무상원조금 463억불과 차관 132억불로 총 595억불에 달한다. 이는 민간부문의 지원금을 제외한 액수이다. 바로 유대인들의 일치된 로비력의 성과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1985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스라엘의 대미 시장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1984년도 친이스라엘 로비단체들의 활동목표 중의 하나였던 텔아비브 소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은 1995년 의회 승인을 받아내는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 인구 중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도 안되지만, 의회에 진출한 유대인의 수는 상원 10명, 하원 53명이다. 대통령 출마자나 의회진출 희망자들은 한결같이 유대인을 의식하여 친이스라엘 제스처를 보낸다. 재임기간 중에 반이스라엘 법안을 상정하거나 정책수행에서 반이스라엘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평이 나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의 로비는 이스라엘 독립 이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도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백악관의 주인과 그 참모진 그리고 의원들이 주요 로비대상이다. 친이스라엘 인사는 밀어주고 그렇지않은 정치인은 밀어 줄 수 없는 그들의 냉엄한 로비 덕택에 중동의 작은나라 이스라엘은 오늘도 초강대국의 지원을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 해외 유대인들의 친이스라엘 로비 실적표



1차대전

1917

발포어선인 (영국의 이스라엘 독립 약속)

S.Wise  
랍비/브란데이스 후계  
  
루즈벨트 친구

Ben Gourion (팔레스타인)  
Jewish Agency 대표  
  
팔레스타인 귀환 촉구

2차대전

랍비 Silver 과격 시오니스트/각 지역별 상·하의원 접촉(서신/전보)지시

1948

Niles/Goldmann/Weizmann  
트루만 측근 및 친구

-----  
이스라엘 독립 선포  
-----

→독립선포 몇 분이후 미국의 승인

(아이젠아워 대통령)

아랍-이, 균형외교 주창/석유중요성/  
유대인 로비스트 미확보

1956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 점령

... 이, 철군 조건 : 아랍의 대이 테러중단,  
대이 경제봉쇄철폐 및 수에즈운하 개통

1958 유대인과 케네디 상원의원

... 유대인 지도자들, 케네디 지원 결의/  
케네디의 친이스라엘 약속

1960

케네디/대통령

... 백악관, 행정부, 의회 및 대법원 유대인  
세력확장/본격적 프로이스라엘정책

1963. 11 케네디 암살

1963

존슨 대통령

... 유대인 측근들 각분야 맹활약/가장  
프로이스라엘 대통령/대이 팬텀판매

소련의 아랍지원 강화와 미국의 대응

1969

닉스/포드대통령

키신저의 외교계 입문  
주미 라빈대사와키신저 관계양호

... AIPAC본격적 로비 활동/유대인들  
민주당 선거자금 50% 담당/키신저  
외교정책에 이스라엘 정부 반대

1976

카터 대통령

중동 오일달러 위력시기  
사우디의 대미 로비 전개

... 선거운동시 친이스라엘 정책 약속/  
사다트와의 평화회담, 강경파 베긴의  
이스라엘 수상취임과 동시 교착상태/  
미-이 관계 급속 냉각기/미국, 대사  
우디 F15기 판매/유대인사회, 외교위  
원장 자금지원중단으로 낙선시킴

1978

캠프데이비드 평화회담

카터-사다트-베긴

(베긴수상의 강경정책이 미국의 대아랍정책 -특히 소련의 아랍접근 관련- 과 대립 양  
상/ 프로이스라엘 단체는 유대인사회의 동요에 썩기를 막고, 무조건적 베긴 수상지지/ 反  
이 정책 지지에 나선 정치인들 개개인에 대한 정계 축출 전략으로 로비력강화)

1980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對사 AWACS  
판매계획 제출

팔레비왕정 붕괴와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 레이건의 대이스라엘 적극적 관계

\* 미국의 대아랍 외교전략: 1) 아랍석유 확보, 2) 소련세력 저지, 3) 반서방세력 사전  
저지, 4) 미국 영향력 강화, 5) 이스라엘 안보유지

... 대중동의교전략: 터-이-이-요-사-파  
군사, 경제 및 정치관계로 소련 견제

...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치열한 로비전/  
52:48로 상원의 승인(350억불 규모)

1984 프로이스라엘 로비단체 활동목표: 1)미국의 대이 원조 확대 유도, 2)텔아비브소재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3)미-이군사관계 강화, 4)미-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5)요르  
단의 평화협상 참여 유도, 6)PLO의 평화협상 대상제외

1985 미국의 대이 경제원조 금액: \$26억/미-이 자유무역 협정체결

1986 미국의 대이 경제원조 금액: \$45억(이스라엘 4인 가족당 \$6,000수준)

-1992년부터 매년 U\$30억의 미국 대외무상 원조금 수혜

1949-1994 미국정부의 대이스라엘 무상원조 총액: 463억불

## VII. 맺음말

유대인들은 오늘날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배경으로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이 과거 어느때 보다 막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이스라엘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미국내 유대인들의 위력을 부인했다. 그들의 공통된 견해는 미국 인구의 3%도 안되는 절대 소수민족인데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는 식이었다. 어떤 유대인은 상기된 얼굴로 그러한 표현이 반유대주의 발상이라고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표현은 LA 출신의 중년 유대인 여성 말이었다. "동양의 어떤 나라 대사가 유대인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가 유대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깜짝 놀란 유대인 지도자가 그 이유를 묻자, 유대인들은 뛰어난 상술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경제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거야." 당시 이스라엘과 화제의 대사 나라간의 불편한 관계가 현지 신문에 보도된 직후인지라 평소 암전한 그녀는 꽤 흥분했었다. 필자가 듣기에 그 동양인 대사는 유대인들을 존경한다는 뜻에서 큰 의미없이 내뱉었던 말로 이해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한번은 잘 아는 유대 사학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네들은 힘이 세다고 하면 화를 내는데, 그러면 힘이 없는 약소민족이라고 하면 듣기가 괜찮습니까?" 그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민족이 유대인의 어떤 측면을 칭찬하면 좋아하겠느냐니까, 머뭇거렸다. 당황해 하는 그를 보고, 유대인들은 인류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족이라고 말하면 어떻겠느냐니까, 그때야 기분 좋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스라엘의 해외 대사관과 현지 유대인 커뮤니티가 매년 각국의 반유대주의를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 차원에서 또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야 그 민감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대응은 몇년전 유럽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던 신나찌주의자들의 유대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엄한 법 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것은 좋은 사례이다.

이스라엘과 해외 유대인 커뮤니티간의 협력 관계는 모사드의 해외 공작활동에서도 잘 나타난다. CIA나 과거 KGB 요원들이 해내지 못하는 활동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현지 유대인들의 도움으로 척척 해낸다는 전직 모사드 요원이 폭로한 바있다. 하기가 따지고 보면 해외교포가 조국을 위해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이상할 것도 없다. 하물며 2500년을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녀야 했던 민족인데, 굳이 종교적 배경을 따지지 않더라도 조국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민족보다 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600만명의 대학살을 상기하면서 민족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 무심한 한마디로 대화를 망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의 그같은 입장을 이해하고, 내부 조직의 움직임을 잘 활용한다면 유대민족과 한민족 차원의 협력을 증진해나갈 여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2차대전 이후 1948년

같은 해에 독립되고, 인적자원 이외에 별도의 천연자원이 없는 소국가로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데다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게오르크 포오러(방석중 옮김):이스라엘역사. 성광문화사, 1992.
2. 우노마사미(김흥기 옮김):유태인의 세계 경제전략. (주)교문사, 1991.
3. 山蔭基央(서달석 옮김): 유태인의 세계지배전략. 보이스사, 1989.
4. 최창모: 이스라엘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5. André Chouraqui: Histoire des juifs en Afrique du Nord, Hachette, 1987.
6. André Chouraqui: La Pensée juive.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1992.
7. Arthur C. Blecher: The jews of America. Behrman House, INC., 1973.
8. Ben Halpern: The American Jew. Schocken Books, 1983.
9. Dan Raviv & Yossi Melman: Friends in deed. Hyperion, 1994.
10. David Leviatin: Followers of the Trail. Yale University, 1989.
11. Edward Tivnan: The Lobby. Touchstone, 1987.
12. Elle Barnavi: Histoire Universelle des Juifs. Hachette, 1992.
13. Encyclopedia JUDAICA. Keter Publishing House Jerusalem. Ltd, 1978.
14. Francois de Fontette: Histoire de l'antisémitisme. Presses Universitaires deFrance, 1982
15. Hayim Halevy Donin: To Be A JEW.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1.
16. Henry Hart Milman: The history of jews. Darf publishers Ltd.
17. Institute of the World Jewish Congress: Jewish Communities of the World.  
Kesem Kibbutz Saad, 1996.
18. Jean—Claude Lasry & Claude Tapia: Les juifs du maghreb.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1989.
19. Joan Comay: The Diaspora story. Steimatzky, 1994.
20. John D.Rayner & Bernard Hooker: Judaism for today. Union of liberal and  
progressive synagogues, 1978.
21. Josy Eisenberg: Une histoire des juifs. C.A.L, 1986.
22. Lee O'brien: American jewish organisations & Israel. Institute for Palestine Studies, 1986
23. Leonard Dinnerstein: L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UNESCO, 1975.
24. Michael Shapiro: The Jewish 100. Citadel Press, 1994.
25. Moche Catane: Qui est juif? Les éditions colbo, 1990.
26. Moses A.Shulvass: From East to Wes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Detroit, 1971.
27. Moshe Ahrend: Vie Juive. Organisation sioniste Mondiale, 1978.
28. Murray Polner: Jewish profiles. Jason Aronson INC., 1991.

29. Richard Marienstras : Etre un peuple en diaspora. Fran, cois Maspero, 1975.
30. Robert S.Wistrich : Anti-Sémitism. Thames Mandarin, 1992.
31. Salomon Grayzel : Histoire des juifs. Service Technique pour l'Éducation. 1967.
32. Steven T. Katz : Jewish ideas and concepts. Schocken Books, 1977.
33. Susanne Klingenstein : Jews in the American academy 1900-1940. Yale University, 1991.
34. TIKKUN : January/February 1994.
35.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U.S. Overseas Loans and Grants and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1995
36. Youssef Courbage & Philippe Fargues : Chrétiens et Juifs dans l'islam arabe et turc. Librairie  
Artheme Fayard, 1992.

K-II  
 B-1461  
 I-I  
 UD-2

81382

저자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명 유대인 반강 歷史에 관한 考察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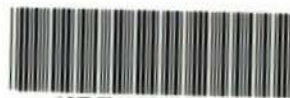
소속	이름	대출일	반강연	고정	반강일
----	----	-----	-----	----	-----

K-II  
 B-1461  
 I-I  
 UD-2

81382

766

 KOTRA



KPR0081382

